

국립세종수목원, “언어폭력 OUT! 존중의 말 꽃피우다.”

- 8월 15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8월 1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언어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립세종수목원 내에서 피켓을 들고 촬영한 후 인증한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www.sj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는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사회적 가치”라며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건강한 소통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실	책임자	실 장	임종태 (044-251-0172)
		담당자	주 임	이승유 (044-251-0229)



1. 지난 7월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언어폭력 없는 기관 만들기’ 선포식에서 내부실천 의지를 다지며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언어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다.